

世界經濟環境의 變化와 우리經濟의 對應

金 泰 日
(全國經濟人聯合會)

78年 우리經濟는 12%를 웃도는 成長을 이루어 1人當 國民所得이 1천달러를 넘어 1,242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밖으로는 20%에 달하는 輸出伸張率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成長率은 70年代에 들어서 73年の 14.7%, 76年 14.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成長率일 뿐만 아니라 外國의 78年 推定成長率과 비교해 보면 대만의 1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美國의 3.8% 日本의 5.8%, 西獨의 2.9%, 英國의 3.0%를 크게 앞지른 高度成長이라 할 수 있다.

高成長의 主役인 國內企業은 각종 原資材價格 上昇과 賃金上昇에 따른 原價上昇壓力과 金融緊縮下에서 資金難까지 겪는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127億弗이라는 輸出目標을 달성하였다.

한편 政府는 79年中 物價上昇率을 10% 以內에서 억제하면서 9%의 經濟成長率을 유지하고 輸出을 78年보다 20% 늘어난 153億 달러로 計劃하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經濟展望과 安定指向下的 輸出成長戰略이라는 政策目標에 共感하면서도 未濟로 남아 있는 國內 經濟의 安定基盤 回復과 世界經濟의 展望이 밝지 않다는데서 많은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으며 企業經營의 主眼點은 더욱 깊어질 것이 우려된다.

특히 79年 世界景氣가 78年 不景氣에서 回復展望이 어두운 가운데 中進國規制의 本格化 可能性과 中共「러시」의 豫想 등 輸出環境이 硬化

될 것으로 보여, 輸出目標 達成에는 지금까지의 對應策과는 質과 次元이 다른 轉換期的 姿勢와 戰略이 要請되고 있다.

1. 78~79年 世界經濟 特徵

가. 世界景氣의 沈滯持續

73年 石油波動의 餘파는 78年에도 持續되어 先進諸國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原油輸入 負擔增大로 인한 國際收支의 惡化를 緩和하기 위해 超緊縮政策이 持續되었으며 低生産性 部門의 失業을 완화하기 위하여 品目別 輸入制限 措置를 強化하는 등 世界經濟는 새로운 秩序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1974~75年の 戰後 最大 不況으로부터 1976年에 回復勢로 反轉 기미를 보였던 世界經濟는 76年 下半期以後 그 回復勢가 다소 鈍化하기 시작하여 77年에 들어와서 美國을 제외한 主要先進國의 경우 鈍化勢가 지속되었으나 78년에는 77年에 相對적으로 好況을 보였던 美國은 景氣下降 局面으로 突入하였으며 77年에 不振 하였던 日本 및 EC諸國은 成長勢가 回復되는 기미를 보였다.

한편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들의 成長勢鈍화와 保護主義 強化 및 全體的인 開發計劃의 不振으로 77年보다 成長勢가 鈍化되었으나 新興 工業國 및 東南亞諸國은 開發計劃 進展 및 輸出增加로 成長好調를 維持하였으며 OPEC諸國은 石油減産, 油價凍結, 달러貨 下落에 따른 實質石

油收入 減少로 成長이 不振하였다.

이와같이 景氣의 完만한 回復勢를 면치 못하는 理由는 첫째 인플레이와 通貨의 不安, 國際收支 改善의 지연 등으로 各國이 조심스러운 景氣 對策을 강구하고 있는데다가 不確實性的 高조로 民間設備投資가 극히 低調하다는 점, 둘째 主要先進國의 國際收支 방어 및 失業減少를 目的으로 하는 新保護貿易主義 傾向이 強化되어 世界交易量의 伸張勢가 鈍化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79年에도 이러한 要因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최근 미국의 緊縮政策을 중심으로 한 달러 防衛對策, EC諸國의 緊縮基調持續, 日本의 輸出鈍化 등으로 미루어 볼 때 79年の 世界景氣는 78年보다 더 못할 것 같다. 世界主要 豫測機關의 최근 豫測을 종합해보면 79年の 先進國 全体의 經濟成長率은 78年보다 다소 낮아

經濟成長 推移 및 展望

單位：前期比, %

	1960-70	1976	1977	1978推定	1979展望
世界	5.2	4.9	4.4	4.4	4.1
OECD	4.9	5.2	3.8	3.6	3.1
美國	4.1	6.0	4.9	3.8	2.3
日本	11.0	6.0	5.1	5.5	5.0
西獨	4.9	5.7	2.6	3.0	3.5
프랑스	5.8	4.6	3.0	3.0	3.5
英國	3.1	2.3	0.7	3.0	2.7
이탈리아	5.5	5.7	1.7	2.5	3.5
캐나다	5.0	5.5	2.6	4.0	3.6
開發國	5.1	5.3	5.0	4.8	5.0
產油國	5.3	12.9	6.3	2.5	4.9
非產油國	5.1	4.8	4.9	5.0	5.0
NIC*	8.8	5.4	5.1	5.5	6.0
共產國	6.7	3.8	5.7	6.1	6.6

註： * 韓國, 台灣,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멕시코의 6個國

** 1963-73 平均

資料：OPCD, WEFA, DRI 및 世界主要豫測機關 豫測值

IMF, Annual Report, Aug. 1978.

UN,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1974.

질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은 78年 水準을 多少 上廻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으며 특히 新興工業國 즉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라질, 멕시코, 대만 등을 先進國의 規制強化에도 불구하고 高度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나. 保護貿易主義의 本格化

78年中 世界貿易伸張率은 76年の 11%에서 4.9%로 低下된 77年에 이어 5.0%에 그치는 不振相을 보인 가운데, 國際收支에 있어서 經濟 그룹간 經常收支의 不均衡은 縮小되었으나 先進國 相互間에 貿易不均衡은 더욱 深化되는 現象을 보였다.

즉 OECD의 經常收支는 原油輸入 減少와 油價의 安定과 아울러 成長不振에 따른 全般的인 輸入需要의 伸張不振으로 赤字幅이 77年の 320億弗에서 78년에는 13億弗로 줄었다. 한편 OPEC의 經常收支 赤字幅은 原油輸出의 減少로 77年 340億弗에서 78년에는 150億弗로 切減된 反面 非產油國의 經常收支 赤字는 더욱 擴大되어 78년에는 350億弗에 이르렀다.

특히 先進國 相互間的 貿易不均衡이 더욱 深化되는 現象을 보여 美國의 貿易赤字는 77년에 312億弗에서 78년에도 350億弗로 늘어난 反面 日本이 175億弗에서 220億弗, EC가 92億弗에서 150億弗로 貿易赤字가 擴大되었다. 이러한 先進國 相互間 不均衡의 擴大는 新保護主義를 더욱 深化시킨 要因이 되어 先進國 相互間的 保護主義를 낳게 하고 新興開發途上國에까지도 이러한 效果가 심각하게 波及되었던 것이다.

79年에도 이러한 要因들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先進國의 經濟成長이 여전히 不振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失業과 인플레이압력이 계속될 것인데다 최근의 保護貿易主義가 부분적으로는 한층 深化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主要機關의 豫測을 종합해보면 79年中 世界貿易伸張率은 78年과 비슷한 6% 程度가 될 것으로 보여 79年 世界貿易環境이 78年보다 크게 惡化될 것같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

業國의 貿易環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確實視된다.

78年 上半期부터 거론 되어온 新興工業國의 輸出急增을 우려한 先進國의 소위 中進國 輸出規制 論議는 표면적으로는 배경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더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從來 自由貿易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미국까지 議會勞

經常收支推移와 展望

單位：10億弗

	1975	1976	1977	1978推定	1979展望
OECD	-6.25	-24.5	-3.2	-1.25	-6
美 國	18.5	4.3	-15.3	-18	-12
日 本	0.7	3.7	11.0	18	12
캐 나 다	-4.7	-3.8	-3.9	-4	-4.5
E C	0.7	-1.8	1.0	12.5	7.5
西 獨	3.8	3.8	3.8	6	4
프 랑 스	-0.1	-6.1	-3.2	2	1
英 國	-3.7	-1.5	0.3	-0.5	0
이탈리아	-0.6	-2.9	2.3	5	4
O P E C	28.8	39.3	34.0	15	17
非產油開發國	-39.5	-26.5	-26.5	-35	-40

資料：OECD, Economic Outlook 外 各種展望資料 綜合.

世界貿易伸張率 推移와 展望(輸入量基準)

單位：%

	1964-73 年平均	1975	1976	1977	1978 推定	1979 推定
自由世界	8.2	-3.8	11.8	4.9	5.0	5.0
OECD	8.4	-7.8	13.8	4.5	5.0	5.0
美 國	10.0	-11.2	21.9	12.1	7.0	3.5
日 本	13.4	-12.5	8.4	2.5	5.0	7.5
E C	9.0	-4.8	15.8	2.8	4.5	5.0
西 獨	10.1	2.6	16.5	4.5	6.0	5.0
프 랑 스	11.5	-7.1	20.8	7.5	3.0	6.0
英 國	6.8	-6.9	6.4	1.0	5.0	2.5
이탈리아	8.3	-11.3	17.6	-2.8	4.0	5.5
O P E C	-	43.5	18.0	15.0	5.5	6.0
非產油開發國	-	-2.5	4.0	6.0	5.0	5.0

資料：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主要豫測機關 및 各國政府 展望資料 綜合.

組業界에서 保護主義 氣運이 擴散되고 있으며 日本과 EC의 경우에는 과거 保護貿易의 主對象이었던 섬유류 뿐만 아니라 철강,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 初期 重化學工業分野에까지 新興工業國으로부터의 輸入에 保護主義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EC의 GSP授惠範圍 縮小 또는 適用排除 新興工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誘引을 規制하기 위한 國際投資協定 締結推進, 低賃에 의해 生産된 製品輸出을 規制하기 위한 國際勞動條件均等化協定 締結 試圖, 先進國의 技術輸出 및 資本輸出의 制限. 東京 라운드協商의 選別的 「세이프가드」制導入 등은 우리나라의 對外經濟活動領域을 制約하는 要因이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開發途上國들의 世界貿易市場에의 進出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 큰 挑戰을 받을 것으로 展望되며 特히 中共의 對外進出은 直接的인 輸出制約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즉 中共의 貿易은 섬유류 및 家電製品 등에 대한 日本과 香港과의 委託加工貿易, 美國 및 日本, 香港, EC諸國 등과 補償貿易 方式과 같은 새로운 貿易方式에 의한 交易이 급증할 것으로 展望되며, 더구나 先進國의 對中共輸出擴大를 겨냥한 의도적인 對中共輸入의 增大는 결국 우리나라의 輕工業製品 輸出을 制約할 것으로 보인다.

다. 基軸通貨의 不安과 國際間 金利隔差

78年 11월호 카터大統領의 달러貨防衛措置發表以前까지는 77年 9月 以來의 달러貨 急落勢가 계속되어 78年中 美달러의 下落率은 円貨에 24.3%, 마르크貨에 14.8%, 스위스 프랑貨에 22.2%, 프랑스 프랑貨에 10.5%, 英國 파운드貨에 5.4%나 되었다.

그러나 11月の 措置에서 美國景氣의 급격한 萎縮까지도 不辭한 公定割引率 및 支準率 引上과 換市介入 強化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달러防衛對策을 실시하자 달러貨는 다소 安定을 되찾고 있다.

달러貨의 安定勢는 79年中에도 維持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나 美國經濟의 인플레이改善 期待難, 2/4分期 以後 美國景氣의 침체에 따른 金利引下 壓力, 美國經濟力의 地位弱화에 따른 달

러貨의 基軸通貨機能 弱화로 달러貨 保有傾向 減少, 美國과 強勢通貨國間·貿易收支 隔差 等은 79年末부터 다시 弱勢로 反轉할 可能性이 있다.

主要通貨別 展望을 보면 마르크貨 및 프랑스 프랑貨는 EMS (歐洲通貨制度) 創設로 인한 外換市場介入 強化로 安定勢를 보일 것이나 엔貨 및 스위스 프랑貨는 餘他通貨에 비하여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英國 파운드貨는 EMS 不參에 따른 投機集中, 높은 인플레이 및 高金利引下 壓力, 영국 經濟力弱화에 따른 파운드表示資金の 공급증가로 弱勢 基調를 免치 못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달러貨展望

單位: 1 달러當 各國通貨單位

	1978			1979		
	最高	最低	平均	最高	最低	平均
日本·円	2.42	1.76	2.10	2.10	1.80	2.00
스위스·프랑	2.04	1.48	1.79	1.90	1.45	1.70
西獨·마르크	2.15	1.72	2.01	2.00	1.85	1.90
프랑스·프랑	4.92	3.90	4.52	4.70	4.50	4.60
英國·파운드*	1.81	2.10	1.92	1.60	1.95	1.75

註: * 파운드當 달러

主要國의 金利

單位: 年利, %

年月末	美國		英國	프랑스	日本	西獨	유로·달러(3個月)	유로·본드 收益率
	公定 利率	프라이머리·레이트	最低貸出 金利	公定 利率	公定 利率	公定 利率		
1976	5.25	6.00	14.25	10.50	6.50	3.00	5.13	7.39
1977	6.00	7.75	7.00	9.50	4.25	3.00	7.25	7.95
1978	9.50	11.75	12.50	9.50	3.50	3.00	11.75	
1978. 3	6.50	8.00	6.50	9.50	3.50	3.00	7.50	7.86
6	7.25	9.00	10.00	9.50	3.50	3.00	8.25	8.14
9	8.00	9.75	10.00	9.50	3.50	3.00	9.50	8.18
10	8.50	10.00	10.00	9.50	3.50	3.00	11.50	8.50
11	9.50	11.50	12.50	9.50	3.50	3.00	11.75	
12	9.50	11.75	12.50	9.50	3.50	3.00	11.75	

註: 美國會社의 달러表示價 收益率

國際金利動向을 보면 強勢通貨國(日本·西獨·스위스)과 弱勢通貨國(美國·英國)間 金利隔差되었는데 특히 美國은 인플레이抑制를 위한 金融緊縮強化와 달러貨·防衛目的으로 高金利 趨勢가 계속되어 史上 최고수준에 肉迫하고 있는 反面 強勢通貨國의 金利는 低水準에서 安定된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國際間 金利隔差는 79年에도 계속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는데 美國은 物價의 下落勢로 進入, 2/4分期後 경기침체에 따른 金融緩和와 壓力 增加 等에 따라 1~2%포인트의 金利 下落이 예상되고 있다. 西獨·英國 프랑스 等 西歐主要國과 日本은 78年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라. 原油價格의 段階的 引上

世界原油生産量은 世界經濟의 低成長에 따라 需要增加勢가 鈍화된데 反하여 最近 北海, 「멕시코」, 「알래스카」等 新規開發油田의 採油가 本格化됨으로써 1976年 以來 供給過剩 現象을 露呈하여 왔다. 이와같은 供給過剩을 背景으로 原油價格은 1977年 7月 以來 「바렐」當 12.70 달러(「아라비아·라이트」基準)로 凍結되어 왔다.

그러나 78年 12月 16~17日 兩日間 UAE의 「아부다비」에서 開催된 第52次 OPEC 總會의 決議를 通하여 79年中 原油價格은 分期別 段階的 인상방식으로 年平均 10%가 引上되게 되었다. 同分期別 引上率을 보면 ① 79年 1月 1日 5%, ② 同 4月 1日 3.809% ③ 同 7月 1日 2.294% ④ 同 10月 1日 2.691% 各各 引上하여 79年 10月 1日 이후에는 78年末 價格對比 14.5% 上昇한 14.542달러/「바렐」가 된다.

이같은 油價引上은 引上抑制要因으로 作用했던 供給過剩이 一部 OPEC諸國의 生産 減縮持續 및 國內政情不安에 基因한 「이란」産油量 激減으로 상당히 緩和됨에 따라 달러貨의 下落과 先進工業國의 인플레이進行에 따른 OPEC의 實質石油收入 減少 補填과 經濟社會開發所要資金 確保 等を 겨냥하고 단행된 것으로 보이며 또 한 從來의 一括引上을 止揚하고 採擇한 段階的 引上方式은 世界經濟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漸

進的 油價引上을 노리는 OPEC의 1980年代 長期價格政策方向 定立을 위한 하나의 試圖로 볼 수 있다.

그런데 OPEC은 今後에도 高「인플레이」와 國際通貨不安持續에 따라 현저한 石油收入의 감소가 초래될 경우 6月以前에 油價를 再引上調整할 것이라고 示唆한 바 있어 油價는 「인플레이」와 달러貨向方에 따라 左右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經濟에 미치는 영향

이와같이 世界經濟는 OECD, NIESR등 海外的 여러豫測機關의 展望值를 綜合하여 볼 때 低調했던 78년에 이어 79년에도 成長은 더욱 鈍化되고 인플레이氣運은 약간 鎮靜되더라도 고용사정은 계속 어려울 것 같으며 2년째 低迷하고 있는 世界貿易의 伸張도 活氣를 되찾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對外依存度가 深化되고 있는 우리經濟도 能動的이건 受動的이건 昏迷한 世界經濟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美國景氣의 鈍化를 비롯하여 油價引上, 中進國에 대한 貿易規制·中共 및 開發途上國들의 對外進出 積極化 등은 우리經濟에 보다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輸出의 主要 對象國인 美國 景氣가 인플레이抑制를 위한 強力한 緊縮政策으로 급속한 沈滯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民間消費支出 및 高金利로 인한 投資支出을 크게 鈍化시킬 뿐만 아니라 成長低調로 失業率이 높아질 것이 豫상되는데 특히 食品, 섬유, 紙類, 皮革 및 木材部門은 고용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豫상하고 있다.

美國內 失業增加는 保護主義를 더욱 強化시켜 對美輸出에 큰 影響을 받게 될 것이며 특히 고용감소가 豫상되는 섬유, 皮革製品 및 木材品에 대한 輸入規制가 強化될 것이 豫상된다. 또한 現在 「컬러TV」輸入規制 및 勞動덤핑 防止를 위한 國際公正賃金基準 設置등이 顯在化되고 있어 우리나라 對美輸出의 主宗品目들의 大部分이 規制를 받게 될 것이며 規制品目以外

인 建築資材 및 自動車와 同部品の 輸出도 住宅投資 및 耐久財消費支出의 減少로 큰 打擊을 받을 것이 豫想된다.

둘째, 美國以外의 先進國들도 低成長·高失業 등으로 香港, 싱가포르, 자유중국, 브라질, 멕시코, 韓國 등 新興工業國을 대상으로 섬유류, 合板, 신발類 등 輕工業製品과 鐵鋼, 造船, 電子製品 등 初期重工業品에 대해 ①一般特惠關稅制度의 적용排除 또는 範圍縮小 ②對開途國 相計關稅惠澤의 解消 ③國際鐵鋼 및 造船 카르텔에 의한 規制強化 ④輸入拒否, 販賣地域 制限, 技術價格 引上 등 資本과 技術의 輸出規制 ⑤新興工業國에 대한 輸入開放壓力 등 規制가 強化될 것이다. 이는 우리經濟가 開途國으로서 누려왔던 國際貿易上의 特惠가 점차 縮小될 뿐만 아니라 이들 초規制對象品目이 總輸出에 대한 比重이 55%나 되는 우리나라輸出에 큰 打擊을 줄 것이다. 또한 特殊分野의 資本·技術導入與件이 硬化될 경우 重化學工業化에 蹉跌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셋째, 中共의 輸出積極化 施策과 産業開發程度에 비추어 섬유類, 木材類, 家電製品, 플라스틱製品, 雜製品 등 輕工業部門에서 美·日·EC市場에서 위협적인 競爭對象國으로 登場하고 있다. 특히 對中共 輸出擴大를 위해 主要 先進國들이 이들 分野에서 加工貿易, 生産分與方式에 의한 輸入을 확대할 것이 豫상될 뿐만 아니라 新興工業國에 대해서는 保護主義를 強化하는 反面 中共에 대해서는 自由化 立場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輸出은 相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資本 및 技術導入面에서 우리나라市場에 대한 先進國의 魅力이 相對적으로 減退될 可能性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石油價格의 引上은 1次的으로 非產油國의 原油輸入 代錢을 追加 負擔시켜 그만큼 貿易收支가 惡化되며 物價上昇을 加速化시킬 것이다. 또 原油收入國들은 石油輸入에 따른 追加 負擔 때문에 일어나는 貿易赤字를 줄이기 위해 保護貿易主義를 더욱 強化할 것이 豫想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原油의 100%를 OPE

C로부터 輸入하는 國家들은 OPEC의 油價引上이 100% 追加負擔으로 나타나는 한편 國際原資材 價格上昇 및 國際貿易環境의 硬化로 輸出障隘要因으로 作用 二重的인 惡影響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8年中에 輸入한 原油는 1억7천5백만 배럴로서 79年中에는 油價引上에 따른 追加負擔 3億달러와 消費 豫想增加率 17%를 합쳐 總27億달러를 支拂해야 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다섯째, 主要先進國들의 保護貿易主義 強化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들의 輸入擴大政策을 가져 올 것이다. 이는 差別的인 수출장벽을 유발하여 왔거나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要因들을 스스로 除去하여 輸出增大를 피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도, 레바논, 멕시코, 브라질 등은 輸入數量制限을 크게 緩和한 바 있고 이스라엘 및 스페인 등은 輸入關稅를 引下하였으며 포르투갈 및 남아프리카 등은 輸入擔保金 예치제를 철폐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은 우리나라도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輸入擴大도 併行해 나가야 함을 뜻한다. 7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 措置는 對內的인 均衡問題 以外에도 國際競爭上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79年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課題를 안고 있다.

3. 맺 음 말

輸出指向의 成長政策下에 80年代 先進經濟圈의 進入을 위해 總力を 競走하고 있는 우리나라 經濟는 안으로는 安定化의 追求와 더불어 밖으로는 輸出의 持續的인 增大가 가장 큰 當面 課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世界經濟는 우리의 輸出增大를 순조롭게 이룩할 수 있도록 與件이 好轉되기 보다는 오히려 惡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밝아보이는 鼓舞的인 側面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先進國의 低調한 展望과는 달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등 新興工業國들과 새로이 油價引上을 斷行한 OPEC 및 A

SEAN을 중심으로 한 開途國들은 대체로 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補救 努力을 強化할 필요가 있다.

또한 先進國中에서도 西獨을 비롯한 EC圈은 78年の 2.6%보다 높은 3.5%의 經濟成長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EC에 대한 貿易增大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리의 戰略産業에 속하는 電子工業과 石油化部門이 鐵鋼·造船 등의 심각한 不況業種 과 달리 비교적 活潑한 伸張勢를 보일 전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79年中 對外的인 經濟環境은 나아질 것이 없고 오히려 더 惡化될 같다. 이러한 環境의 惡化가 우리經濟에 重大 衝擊을 最小限으로 中和하면서 輸出主導的인 經濟成長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長期的인 關係에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經濟協力基調는 既存 經濟協力「채널」을 深化 發展시킴과 아울러 企業에 重點을 둔 民間經協의 低邊擴大에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第3世界 및 共產圈과의 經濟協力 擴大를 伸縮性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石油, 非鐵金屬 등 價格上昇이 豫想되는 品目에 대하여는 備蓄, 先物市場의 利用 등의 方法으로 適期, 安定購入을 도모하고 長期的으로는 民間企業들이 資源保存國과의 協調下에 開發輸入事業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技術革新 風土의 定着化와 技術集約的인 高加工度産業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나라 特化産業으로 浮上시킴으로써 比較生産優位 産業이 저렴한 賃금이 아니라 技術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全製品의 價格 및 品質面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諸般 稅率, 金利關稅率 등의 國際水準化가 前提되어야 할 것이며 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內 物價의 安定恢復을 위한 全面的인 努力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國內産業施設의 國際水準化, 企業間 協同體制形成, 部品, 素材, 機資材 플랜트

등의 國産化, 人力의 開發養成 등은 世界經濟 環境의 變化에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수요건이 된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投資財源의 調達 및 供給體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席政刷新에 關한 大統領閣下말씀

우리나라 社會에는 急速한 經濟成長과 産業化過程에서 産業公害, 自然毀損, 大型事故, 物質萬能風潮等の 바람직하지 못한 副作用 또는 否正的 測面이 나타나고 있는데, 其中 公害, 自然毀損, 大型事故等은 指導啓蒙과 團束을 強化함으로써 是正이 可能하다고 보지만, 物質萬能風潮等の 是正은 根本的으로 人間의 精神을 改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國民各自가 마음속에 革命을 일으켜 精神文化風土를 改善해야 한다.

(78. 1. 18 年頭記者會見時)

東西古今의 歷史를 보면 興亡이 無常한데 公務員社會가 腐敗하고 富裕層이 奢侈하면 結局 그 나라 그 社會는 기울어지게 마련이므로 問題는 公務員社會의 紀綱이 確立되고 指導層과 富裕層이 國家社會를 爲해서 率先垂範한다는 것이 重要的 것이다.

(78. 2. 21 全羅南道 年頭巡視時)